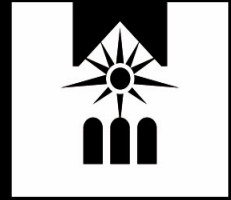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Currently suspended.*

Wednesday

5:30 - 6:30 pm

SEVEN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5, 2021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Seven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Gather the fragments left over, so that nothing will be wasted. (John 6:12)

In John's telling of the miracle of the loaves and fishes, Jesus says very little. Out of a story that is 310 words long, Jesus speaks only 25! But there is a whole world of meaning behind each word.

First, Jesus sets the miracle in motion with a practical question: "Where can we buy enough food for them to eat?" (John 6:5). Jesus knows what he is going to do, but he wants to prompt Philip and the other disciples to expand their expectations. He is pointing out a situation that is humanly impossible to solve so that they will begin to consider other, more divinely inspired options.

Next, he prepares everyone to receive the miracle he is about to perform: "Have the people recline" (John 6:10). They don't have to do much—just take a position of rest and trust. Of course, that may not be easy when you're hungry and you can't see any food readily available. But that's the way it is with the Lord: sometimes he asks you to rest and trust in his provision, even when you can't see any possible hope of a way out.

Finally, he brings the miracle to a close: "Gather the fragments left over, so that nothing will be wasted" (John 6:12). Jesus is generous—exceedingly generous—but he is not wasteful. A lot was left over, and Jesus wanted to make sure it went to good use. These baskets of food—one for each apostle—were his way of telling us to be equally generous in sharing his blessings. Every gift he gives is meant not just for us; it's meant to shape how we speak and act so that we can become stronger witnesses to his love.

Like manna from heaven, Jesus' grace is always showering down on us. May we learn how to receive it and always be ready to offer it to the people around us!

"Thank you, Jesus, for always giving me what I need! Please show me how to share your blessings with everyone else."

2 Kings 4:42-44

Psalm 145:10-11, 15-18

Ephesians 4:1-6

The WORD Among Us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Collections

July 18 Offertory Collection: \$2,139.00

Weekly Budgeted Expenses: \$4,100.00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generosit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uly 24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July 25 SEVEN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Mass 10:30 a.m. Special Intention
Monday, July 26 St. Joachim St. Anne	† 7:30 a.m. Emily Elizabeth Byers
Tuesday, July 27	† 7:30 a.m. Maria Borrero
Wednesday, July 28	† 7:30 a.m. Lois Robinson
Thursday, July 29 St. Martha	7:30 a.m. Gita Ladd
Friday, July 30 St. Peter Chrysologus	† 7:30 a.m. Corazon Virata Dimatulac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4	성체성가	172
봉헌성가	221	마침성가	2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42-44	복음 환호송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어 주소서.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제2독서	에페소서 4,1-6	복음 요한 6, 1-1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6.11).	

◎ **미사 정상화 안내** 지난 6월 27일부터 주일 미사부터 워싱턴 대교구를 포함한 근교 교구 미사가 정상화 됩니다. 미사가 정상화되면 주일 미사와 대축일 미사가 신자의 의무가 됩니다. 지난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미사 봉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일 헌금 및 기부금 안내** 에피파니 성당에 헌금 및 기부금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Online Giving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21-2022년 예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해서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보편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아끼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성 야고보] 축일 7월 25일

성 야고보(Jacobus) 사도는 제베대오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Joannes, 12월 27일)의 형이다. 성 야고보와 성 요한은 갈릴래아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였다. 그들은 부친과 함께 갈릴래아 호수에 배를 띄워 고기잡이로 살던 사람들이다(마태 4,21-22; 마르 1,19-20; 루카 5,10-11).

그들은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Andreas)의 집에 갔을 때 열병으로 누워 있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현장에 있었다(마르 1,29-31). 그들은 또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마태 20,21) 하고 청했던 사람들이다. 또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을 지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얻었고(마르 3,17),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냉대를 받자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루카 9,54)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성 베드로)와 그들 형제만 따라오게 하셨으며(마르 5,37),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순간에도 성 베드로(Petrus, 6월 29일)와 그들 형제만 함께 자리하게 하셨고(마태 17,1; 마르 9,2; 루카 9,28), 겿세마니(Gethsemane)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하셨다(마태 26,37; 마르 14,33).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 야고보는 헤로데 아그리파 1세 임금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받고 사도로서는 첫 순교자가 되었다(12,1-2). 전승에 의하면 그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에스파냐 북서부 갈리시아(Galicia) 지방까지 갔다고 한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다. 그가 순교한 곳에는 후에 그를 기념해 성 야고보 성당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성 야고보의 유해를 갈리시아 지방으로 옮겨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711년 에스파냐와 이베리아반도 전역이 아프리카 북부에 살던 무어족의 침략을 받아 점령당한 뒤 성인의 유해 또한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813년에 그 지방에 살던 한 은수자가 별빛에 이끌려 기적적으로 성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그 위에 성당이 건립되고, ‘별들의 들판’이란 뜻에서 ‘컴포스텔라’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 성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성인의 이름을 따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성 야고보의 무덤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사라센 제국에 의해 점령되면서 순례가 어려워지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로마와 함께 유럽인이 즐겨 찾는 3대 순례지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유럽을 가로질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여러 순례길이 생겨났다. 후대에 ‘카미노’(Camino)로 불리게 된 이 순례길에는 순례자를 위한 많은 성당과 수도원이 건립되어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순례자의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안전과 쉼터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중세 전설 중에는 에스파냐 중북부 지역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어인들이 침략했을 때 성 야고보 사도가 백마를 탄 기사 모습으로 나타나 앞장서 무찔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래서 에스파냐 미술 작품에서 종종 말을 탄 기사의 모습으로 성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를 보통 ‘성 야고보 마타모로스’(Santiago Matamoros)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로 성 야고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수호성인으로 큰 공경을 받고 있다.

교회 미술에서 성 야고보는 순례자의 수호성인답게 보통 순례자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진다. 그는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물병으로 사용한 호리병을 들고 있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모자와 조개껍데기도 자주 등장한다. 조개껍데기는 성 야고보 사도와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한다. 그가 순교한 후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빈 배에 태워 띄우자 이베리아 반도 해안까지 갔는데 성인의 유해가 조개껍데기에 싸여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어느 기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성인으로 도움으로 조개껍데기에 둘러싸여 무사히 살아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조개(조가비)껍데기는 성 야고보를 상징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 문양은 카미노 순례길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에도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두 명이 야고보가 있다. 전통적으로 단순히 혼동을 피하고자 제베대오의 아들이자 사도 성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대(大) 또는 장(長) 야고보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5월 3일)는 소(小) 또는 차(次) 야고보로 부르고 있다.

www.catholic.or.kr

